

완도 장보고 축제, 체류형 축제로 정착

체험 행사 늘고 볼거리·먹을거리 풍성
3일간 10만명 몰려 65억 경제적 효과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완도 장보고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하는 성공적인 해양문화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완도군은 “7~9일까지 3일간 완도항 일원에서 열린 ‘2010 완도장보고축제’에 1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65억여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15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역사와 웰빙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관광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장보고대사의 어린 시절을 체험하는 ‘궁복아 놀자’를 비롯해 ▲서남해안에 출몰했던 ‘해적체험’ ▲과거 청해진 무역상으로 변신하는 ‘청해진 무역상체험’ ▲가리포민속체험 등 테마체험을 극대화한 ‘장보고 역사체험마당’ 등 체험행사를

를 지난해보다 대폭 강화했다. 장도에서 출발해 주도를 돌아 최경주 광장으로 들어오는 ‘청해진 해상퍼레이드’는 규모와 형식을 확대하고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해상활동을 현대적으로 재현,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신설해 인기를 끈 거리극 ‘청해진 장보고’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관광객들의 참여폭을 확대해 운영,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전북·넙치 웰빙체험관’을 비롯해 ▲완도수산물직판장 ‘심상해’ ▲2010 장보고 해초집값만들기 ▲전통 재래김뜨기 체험 ▲장보고 해변열차 ▲전통 노점가 대회 등 다채로운 웰빙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건강에 관심이 높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지난해 장보고축제평가 영역에



‘장보고 축제’ 마지막 날인 9일 해변공원에서 선보인 거리극 ‘해상왕 장보고’

따르면 축제기간 하루이상 완도에 머무르는 외지방문객이 52%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인 ‘체류형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전국축제 중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실제로 ‘장보고축제’가 역사와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볼거리·먹을거리·살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7일 열린 ‘장보고 범종타종식’에는 김중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리쥬오 바오 중국 절강성 무상사주지·천지엔 산동대학 불교철학과 교수·오우치 코이치 일본 ‘엔닌의 종을 울리는 모일’회장·히하라 모토코 일본 풍토색채문화 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한·중·일을 무대로 활약한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렸다. 축제평가단인 박은경 목포대연구원은 “장보고 축제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숙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어느 지역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해외 축제 전문가’ 함평으로

郡, 나비대축제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지역축제의 발전방향과 잠재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세미나가 함평에서 열렸다. 함평군은 ‘제12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기념해 지난 7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해외축제 전문가 초청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와 한국관광포럼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 벨트만 유럽나비축제협회 네덜란드 대표와 샘 탠렌리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화웨이 디자인 감독, 정강환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장 등 국제적인 축제전문가들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발표주제는 ▲함평나비대축제의 이수 및 발전전략 ▲유럽나비전시관의 성공전략과 발전방안 ▲나비축제의 성공을 위한 전시연출의 발전 아이디어 전략으로 구성됐다. 또한 박양우 중앙대 부총장·이수범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심상욱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오금렬 함평군 문화관광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학술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 지역축제가 더욱 알차게 발전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화기자 hwang@

진도 먹을거리 특화 ‘관광 상품화’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

진도군이 먹을거리 관광 상품화를 통해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진도군은 최근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사업에 선정돼 도비 1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투입, 진도읍 남달이 수산시장 주변에 먹을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군은 관광의 주요 요소인 먹을거리를 특화시켜 관광객에게 보고·느끼는 즐거움과 함께 관내에서 생산된 청정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반찬 상차림을 만들어 진도군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화거리 음식점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천연조미료 제조 교육을 실시해 ▲향토 농·수산물 사용하기 ▲화화조미료 사용 줄이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개별찬기 제공하기 ▲반찬 가짓수 줄이기 등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진도만의 특화음식과 반찬 등을 관광객에게 선보여 외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목포 직진우선 신호체계 역효과

시행 1개월...출·퇴근시간 되레 교통흐름만 방해
경찰 “선진국 검증 거쳐...운전자 의식부족 때문”

목포에 직진우선 신호체계가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났으나 오히려 출·퇴근시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야할 목포시와 목포경찰서는 운전자들의 의식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축하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경찰청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 4월 직진우선 체계를 도입했다. 6일 현재 백년로 기동병원·후광로 롯데마트 네거리 등 58곳의 신호체계가 직진우선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직진우선체계 도입 후 출·퇴근 시간 운전자들이 느끼는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퇴근 시간 기동병원 하단 네거리에서 목포교육청까지 5분이면 통과하던 것이 지금은 10분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체증이 증가한 것은 편도 3차선이 대부분인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직진신호 우선 신호를 늘렸기 때문이다. 편도 3차선 도로의 경우 1차선이 좌회전 전용 차선으로 활용돼 불법주정차차량이 있게되면 사실상 1개 차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특히 출근시간은 백년로·후광로에 이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해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곳에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돼 좌회전 차로가 짧

아 직진에 흐름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시설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좌회전 동시신호는 차량흐름이 많은 구간의 신호등 순환시간을 조절, 교통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직진우선 신호는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순환시간을 줄 수밖에 없어 교통흐름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운전자 A씨(35)는 “출퇴근 시간은 직·좌 동시신호보다 더 엉망이 됐다”며 “선진화도 좋지만 지역 여건과 비보호 좌회전이 활성화되지 않은 교차로는 동시신호가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목포시와 경찰서는 운전자들의 의식부족 때문에 교통체증이 증가한 것이지 직진우선체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검증을 거친 체계인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그들의 희생 있었기에... 최근 가족들과 목포 평화광장을 찾은 목포시민들이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전남도지부와 목포지회 주최로 열린 호국·안보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항 관문’ 시하해역에 등대 설치

높이 12.6m 규모...10월 준공

목포항의 관문인 시하해역에 등대가 설치된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목포항으로 입·출항하는 중요 항로인 신안군 안좌면 시하도 서쪽 3km 해상에 수중 암초와 저(低)수심대

가 있어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무인 등대(대포탄 등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목포항만청은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지름 2.2m·높이 12.6m의 원형 철근 콘크리트 등대를 오는 14일 착공,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6245-5585

전국 **싼** **땅** 팔 분

1천만 ~ 10억 **즉시** **계약** **물물교환도 환영**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8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로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 ⑥ 10층 신축건물 옆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김진군 칠랑면 칠랑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 도로점용 허가 특
 - 마당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 2010년 9월 완공 칠랑농공단지앞 유입주유소
- 매매가 : 1억 7천만원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큰놈'** 개발출한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듯 큰 기대를 걸고 이것저것을 고가로 사서 사용해 보았으나 사용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하여 아까운 돈만 날려 버리고 허탈감 속에서 불신임만 쌓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큰놈을 보고도 지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이 혹시나 하고 이번에도 만신만의 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사용즉시 불칸 일어서며 장시간 지속되어 꿈인지 생인지 청춘으로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열가부런 개선을 위한 기구 실용성만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 하여도 파부같은 촉감에 달팽이 모양같은 실리온이 처음 보이며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진공 펌프도 아닌 산체물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정되어 만원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타나게 날개 동쳐 나가고 있다.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회혼의 꿈, 파워마카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 구매시 **한나경서적**이 없는 것은 유시됩니다. **99,000원**

인기폭발 “양코” 지구력향상!!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홍신판매 신고증 제1183호) (G-FLOW)

1588-4102
010-8558-4114, 010-8952-4114
농협 301-0036-8883-71 예금주:윤로범 핫나경 www.핫나경.kr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의 최대의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르... 분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려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은 60% 大, 中, 小 10단계조절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4학년의 신비 그린머드(멘토나이트)가 만들어 내는 3개월의 기적!!!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시나요? 스트레스가 심하시나요? 모발이 얇아지고, 소갈머리, 주변머리등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제 “난아미린”이 해결해 드립니다. 탈모방지 및 속모전용 헤어제품인 난아미린은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청 허가제품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빠질아래 체모가 풍성해 진다.

1577-4101
010-5296-4114, 010-8952-4114
농협 569-12-034626 예금주:메리자 www.핫나경.kr